

북한과 연변 소설의 속담에 관한 단상

민충환

부천대 교수

주지하다시피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의 개방은 우리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우리에게,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와 중국 내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과의 민족적 동질성이라는 면에서 중국은 더욱 특별한 관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연변을 중심으로 하여 소수 민족의 정체성을 꾸준히 유지해 온 중국 내 우리 동포들과는 민족적 혹은 문화적 동질성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지난 1988년 남·월북 작가 작품의 해금 이후 오랫동안 금기시 하던 북한과 연변의 문학작품이 폭넓게 출간·소개되면서부터 문화적 충돌이라 일컬을 만큼 민족적 동질성이 훼손된 흔적이 나타나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남·월북 작가의 작품을 접한다든가 혹은 중국 내 조선인들의 작품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종전에는 생각지도 못할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정작 이 작품들을 대하면서 적잖은 당혹감을 느끼는 것은 언어의 이질감에 기인하는데,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굳어진 어휘 자체가 우리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오랜 세월 동안 입에 굳어 있어야 할 속담까지 차이가 나는 데에는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 보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말을 증폭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같은 의미인데 서로 표현하는 것이 다르다면 둘이 합쳐질 때 그만큼 어휘와 속담의 수는 늘어나게 된다. 북한과 연변에서 많이 쓰이는 유용한 표현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나갈 때에 언어를 통해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과 연변의 소설에 나타난 속담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몇 가지 생각을 여기 소개한다.

1

‘가난이 원수’라는 말이 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거나 고통을 받게 되니, 가난이 원수와 같이 느껴진다는 말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속담은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기 이전의 소설에서는 수시로 볼 수 있었던 것이며, 김학철의 <격정시대 ②>를 비롯하여 리태수·림원춘 등이 쓴 연변소설과 월북작가 박태원의 <갑오농민전쟁 ③>, 이기영의 <두만강 ①,④> 등에 두루 나오는 것이다. 같은 월북 작가인 벽초 홍명희의 <임격정>과 이태준의 <화관> 등 광복 이전의 작품에도 나왔던 이 말이 광복 후 남한의 작품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북한과 연변의 작품에 자주 보이는 이 ‘가난이 원수’라는 말이 왜 남한에서는 보이지 않을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역사와 사회를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대립 구조로 파악하여 이상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본가를 타도·분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없는 자’들을 대동 단결시키기 위해서는 다분히 투쟁적이며 격정적인 언어가 필요했다. 그래서 ‘자본가들의 착취’로 말미암아 파생되었다고 보는 <가난>의 문제에서도 ‘원수’라는 말을 즐겨 쓰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더구나 투쟁과 단결 그리고 남쪽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수’가 쓰였다고 볼 때, 이런 맥락에서 남한에서는 이 말을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라고 한다면 필자의 성급한 판단일까? 어린 시절 즐겨 쓰던 ‘동무’란 단어가 어느 날부터 쓰이지 않게 된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2

다음은 ‘값이 같거나 같은 노력을 들일 바에야 이왕이면 품질이 좋거나 마음에 드는 것을 취한다’는 뜻의 속담을 보자. 바로 ‘동가홍상(同價紅裳)’이 그것이다. 이러한 뜻을 담은 속담이 남·북한과 연변에서 다소 다르게 쓰이고 있다.

대개가 남한에서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하는 데 반해 북한과 연변에서는 ‘같은 값이면 분홍치마’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다. ‘같은 값이면 분홍치마’는 립원춘의 단편소설 <몽당치마>와 리태수의 장편소설 <춘삼월>을 비롯하여 김학철의 <격정시대 ①> 그리고 강효근의 <아, 사랑이란> 등에 폭넓게 쓰이고 있다.

다홍과 분홍.

일견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는 이 차이는 매우 미묘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우리말 사전을 보면, 다홍은 ‘질고 산뜻한 붉은색’(질게 붉은 색깔(북한), 산뜻한 질은 붉은 빛(연변)), 그리고 분홍은 ‘진달래꽃의 빛깔과 같이 얹게 붉은 색’(좀 연하게 붉은 색(북한), 연한 붉은 빛(연변))이라 풀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다홍’은 원색에 가까운 보다 질은 붉은 색, 그리고 ‘분홍’은 좀 연한 붉은 색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홍과 분홍의 차이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그 이유를 딱히 집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간의 상이한 정치 체제 하에서 유발된 예술·문학관, 그 정서에 바탕을 둔 것은 아닌가 하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잘 알고 있듯이 북한과 연변은 그간 사회주의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 오면서 예술·문학 면에서 민족 주체성을 강조해 왔다. 다홍과 분홍, 두 낱말이 다 같이 한자어이지만 분홍이라는 색감이 민족적인 정서에 더 부합하고 일반 대중들의 정

서에 더욱 친밀히 작용하였기 때문에 선호하게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분홍이라 할 때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웃고름 씹어가며’ 하는 노랫말이 연상되고 왠지 모를 가슴 두근거림을 느낀다. 그러나 ‘다홍’이라 할 때는 둔감한 탓에서인지 모르지만 별 감흥 없이 무덤덤하게 느껴지는 것은 나도 분명 단군의 피를 받은 사람이어서일까?

3

우리 속담 중에 ‘성 쌓고 남은 돌’이란 말이 있다. 남북한의 소설에서는 이 속담이 쓰인 예를 찾기가 매우 힘든데 반해 연변 소설에서는 자주 나오고 있다. 다음을 보자.

“아바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뭐?”

“저를 도와주십시오.”

단오는 더 높은 소리로 말했다.

“도와달라구? 난 인젠 성 쌓고 남은 돌이네.”

--- 리태수, <조각달 둥근달>

그렇다면 진짜 남은 것이 무엇인가? 병과 가난, 노쇠…… 성 쌓고 남은 돌이라더니 자기는 기름 짜고 남은 찌꺼기였다.

--- 림원춘, <여생의 반딧불>

성 쌓고 남은 돌 신세가 된 이 형이야 뒷바라지나 해줄 판이지.

--- 윤희언, <땅의 소원>

이 속담은 ‘쓰일 자리에서 쓰이지 못하고 남아서 이제는 쓸모가 없이 된, 매우 외롭고 불우한 신세’를 뜻한다. 오래 전에는 매우 중요한 소임을 맡아 유용하게

쓰이다가 대역사(大役事)가 끝나자 아무도 거들떠보는 이조차 없게 된 딱한 상태이다.

남북한의 소설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 이 속담이 유독 연변 소설에는 왜 자주 등장할까? 그 정확한 이유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조선족이라는 중국 내의 소수 민족으로서 조국이 아닌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에 매진하다가, 앞의 림원춘의 소설 한 구절처럼 ‘병과 가난, 노쇠’하게 됨에 따라 더욱 큰 공허감을 느끼게 된 데에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4

우리 속담에 ‘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르다’는 말이 있다. 같은 내용의 말이 라도 표현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는 뜻이다. 이 말이 북한에서는 ‘탁해 다르고 툇해 다르다’는 말로 나타난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솜씨에 따라 음식 맛이 각기 다르듯이 변형된 표현 내용이 매우 흥미롭다. 이 같은 다양한 창의력이 우리 한민족의 피 속에 살아 흘러내려 오고 있다. 이 약동하는 에너지가 지금은 비록 남과 북으로 갈라져 이질감을 주고 있지만 머지않아 언젠가는 합일되어 활화산처럼 분출될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우리의 <속담사전>에는 표제어로 등재되지 않아 눈에 생소한 속담이 북한과 연변의 소설에는 수시로 등장한다. 여기 그 몇 가지 예를 소개한다.

갑산 개금 : 물건이 천하여 값이 싸다는 말.

개잡은 포수 : 하잘것없는 일을 해놓고 희뽀게 우쭐거리거나 멋쩍게 된 모양을 비웃어 이르는 말.

미꾸라지 이 갈기 : 불가능한 일이나 얼토당토않은 망상을 풍자한 말.

사과가 되지 말고 도마도(→토마토)가 되라 : 사람은 안팎이 같아야 한다는 말.

삶은 개 눈 빼기 : 삶은 개에게서 눈을 빼기란 매우 쉬운 일이라는 뜻으로, 하는 일이 매우 쉬움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조리로 물 푸기 : 아무리 하여도 보람이 없는 헛된 일이라는 말.

콩나물에 낫겉이 : 작은 일에 요란스럽게 큰 대책을 세우는 꼴을 비웃어 이르는 말.

고양이 뽀 :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물건을 비껴 이르는 말.

길을 가면 돌도 차고 흙도 찬다 : 사람이 살아나가거나 어떤 일을 하노라면 이리저리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말

꽃이 돋보임은 잎사귀 때문이다 : 뒤에서 받들어 줌의 중요성을 이르는 말.

도리깨와 사위는 먹어도 안 먹는다고 한다 : 사위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막 삼아도 짚신 : 아무렇게나 해도 자기의 본바탕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됨을 비껴 이르는 말.

손등(발등) 다르고 손바닥(발바닥) 다르다 : 촌수가 가깝고 멀기에 따라 다르고 친불친에 따라 다르다는 말.

범은 죽어도 강산을 베고 죽는다 : 죽을지언정 절개를 굽히지 않는다는 말.

벼룩이 낙상할 일 : 하는 일이 어이없고 가소롭다는 것을 비웃어 이르는 말.

벚짚에도 속이 있다 : 누구나 사람을 너무 얹잡아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르는 말.

봄에는 한시가 급하고 가을에는 하루별이 급하다 : 봄에는 다그쳐 밭갈이를 하고 가을에는 다그쳐 가을걷이를 해야 함을 이르는 말.

약한 다리에 침이 간다 : 능력이 약한 사람을 자주 돌보게 된다는 말.

한가마밥 먹은 사람이 한울음 운다 : 처지가 같고 동일한 환경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뜻이나 행동이 서로 통한다는 말.

우리 소설 작품에서는 찾을 수 없는 속담들이지만 그 뜻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같은 민족이기에 충분히 쓸 수 있는 말들이다. 북한과 연변의 이러한 속담들을 적극 수용하여 우리말을 더욱 살지게 만들고 싶은 것은 필자 혼자만의 바람일까?